

# 민속마을 장류특구 시너지 기대

### 순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20억원 확보

순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속마을 장류특구 일대가 '전통발효식품 집적지구'로 선정되는 동시에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들이 모인 지구를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이 지난 1997년에 조성됨에 따라 한국의 대표 장류특구로서 명성을 이어오고 있지만 점차 시설 노후화,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보관시설 확장 및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제품 개발 등이 어려워졌다. 이에, 이번 사업선정으로 국비 19억원, 도비와 지방비 21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순창읍 백산리 805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457㎡ 규모로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설에는 ▲제조생산시설(소포장시설, 소스제조시설 등) ▲공동 저온·냉동창고 ▲물류집하장 ▲교육 및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시설 주변에는 장류연구소,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같은 연구기관과 체험관광자원인 장류체험관, 발효소스도굴 등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보

관창고를 규모별로 확대, 조성하여 임대함으로써 민속마을 장류특구 내 소공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제품 포장 다양화, 소스 상품화를 통해 전통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맛있고 편리한 장류, 건강한 소스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신사업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2세대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여 장류특구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이번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은 계기로 소공인 조직화와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투어패스 '남원춘향사랑권' 운영

### 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 등 7개소 무료입장... 공연, 숙소, 체험 할인도

남원시는 1장의 카드로 남원유료관광지 7개소 무료입장과 맛집, 숙박, 체험 등에서 특별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형 남원투어패스 '남원춘향사랑권'을 운영 중에 있다.

남원투어패스는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연, 체험 등이 분포되어 있는 남원만의 특화된 기획 상품으로 전북투어패스 연계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남원춘향사랑권을 이용하면 광한루원, 남원역, 종합안내센터의 오프라인, 수지미술관, 지리산허브밸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 남원랜드 등 총 7개소를 무료입장 가능하며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등록 된 맛집, 공연, 숙소, 체험 등의 할인혜택도 덩어로 받을 수 있다.

남원투어패스 구입은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 쿠팡, 티몬 등 인터넷쇼핑몰과 광한루원 정문 앞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온라인 구매와 남원관내에 위치한 관광안내소 3개소(광한루원, 남원역, 종합안내센터)의 오프라인도 가능하다.

투어패스는 1인1매당 온라인(모바일형) 4,900원, 오프라인(카드형) 5,000원으로 남원의 7개소 관광지를 정상 금액으로 이용하면 26,000원이며, 투어패스를 이용하면 정상가의 약 80% 정도가 절약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개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여행트렌드와 투어패스 '남원춘향사랑권' 도입을 통해 남원만의 특화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 지역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 군의회와 협업, 임실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등 검토

임실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지역상품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군은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병행하여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대폭 낮출 계획이어서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군은 추석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심민 군수와 직원 등이 적극 동참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전 군민 차원의 전통시장 장보기 이용 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명절 분위기를 및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군은 명절 기간에 임실사랑상품권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토록 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임실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금액에 판매 중이다.

향후 군은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례개정 등 절차를 거쳐 상품권 할인율을 권면금액의 8%, 명절 등 특정기간에는 10% 할인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도 지역상품권 발행규모도 30억원으로 늘려 공격적인 판매촉진에 나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대형마트 상권 확대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며 "임실사랑상품권이 명절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팔려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내의 소스산업의 현황을 엿볼 수 있는 장인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가 다음달 18일부터 20일까지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 순창소스, 세계발효소스박람회서 만나요

### 다음달 18일부터 20일까지 순창고추장민속마을

국내의 소스산업의 현황을 엿볼 수 있는 장인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가 다음달 18일부터 20일까지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전국의 관광객을 맞는다.

올해는 순창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라차차 소스'를 개발해 방문객들에게 선보인다. '오라차차 소스'는 유산균으로 발효한 고추 발효물(청양고추, 홍고추)을 사용한 한국형 핫소스로서 고기 및 다양한 음식에 찍어먹는 소스다. 특히 유기산이 풍부하고 홍고추의 단맛과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어우러져 모든 세대가 선호할 수 있는 소스다.

지난해 소스박람회에서 순창소스 3종인 고기담핑소스, 무침소스, 비빔소스를 선보여 많은 관람객에게 호평을 받은바 있어, 이번엔 선보이는 소스도 방문객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어 소스의 고장 순창이라는 브랜드 리빌딩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라차차 소스를 맛보 는 순창소스식당 운영과 소들리에처럼 눈을 가리고 소스를 맛보

는 효들리에(발효소스+소들리에) 체험, 소스를 활용한 쿠키쇼 등 순창소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구독자 50여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하나씨를 초청해 현장에서 LIVE 방송으로 전국에서 아쉽게 못본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소스를 소개해줄 전망이다. 군이 이번 유튜브를 이용해 젊은 층 유입에도 공을 들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박람회장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버마 다리 체험과 클라이밍 쥘리안 등 숲 체험도 준비해 박람회장에는 어린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지난해 박람회로 소스산업을 선도하는 순창군의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만큼 이번엔 여성과 어린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박람회장으로 변모해 소스산업화를 이끄는 동시에 문화교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 아리

## 임실군민의 장 수상자 확정

임실군민의장 심사위원회(위원장 심민 임실군수)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고, 각계 각층에서 임실발전을 위해 노력한 5명을 '제38회 임실군민의장 수상자'로 확정했다.

임실군민의 장은 임실군 거주자나 출신자 중 공적이 훌륭한 사람을 추천, 시상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군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 25일간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10명의 후보자 중 현지실사와 소위원회, 본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부분별 수상자로는 문화체육장 심우진(관촌면)씨, 공익새마을장 박세근(오수면)씨, 효열장 유정금(신평면)씨, 애향장 한중수(재경향우회, 청용면 출신), 신동해(재성남향우회, 신덕면 출신)를 각각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다가오는 10월 3일 제58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민의 장은 임실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최고의 상으로, 그동안 임실발전과 효행을 실천하여 많은 기여를 해주신 선정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우수 수행기관 선정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남원시니어클럽이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매년 참여자 선발 및 활동내실화 노력, 자치단체 협력정도 등 전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및 교차평가, 중앙평가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시상식은 오는 10월 1일 콘래드호텔(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다.

남원시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55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213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는 93억9000여만원 예산으로 292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조환익 여성가족과장은 "시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관계 증진 및 소득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순창군, 터미널에 관광안내소 개소

순창군이 오는 17일 순창터미널에 새롭게 관광안내소를 연다.

군은 그동안 강천산근린공원내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며, 관광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순창터미널에 안내소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설하는 순창읍 관광안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설,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 근무하며,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관광정보, 교통·숙박 등 관광 전반에 걸쳐 관광객에게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